

통화량은 늘었는데 가계 보유분은 19.8 조원 줄었다

M2 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금융상품 잔액의 합계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발표를 가계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 주는 자료로 보지 않는다. 어떤 금융상품의 잔액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만 적힌 자료다. 6 월 M2 평잔은 전월대비 0.7% 늘었고, 같은 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액은 19.8 조원 줄었다. 두 문장은 함께 성립한다.

01 · 확정된 사실

한국은행 경제통계 1 국 금융통계팀은 2026 년 8 월 14 일 「2026 년 6 월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M1(협의통화, 평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0.0%	2026 년 6 월
M2(광의통화, 평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6.0%	2026 년 6 월
금융상품별 증감	MMF +7.3 조원, 2 년미만 정기예적금 +7.1 조원	M2 구성항목
경제주체별 증감	비금융기업 +45.7 조원, 기타금융기관 +5.4 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19.8 조원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	전월대비 +1.0%	
L(광의유동성, 말잔)	전월말대비 +0.8%	

발표문은 6 월 M1(협의통화, 평잔)이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했다고 적었다.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했다.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는 전월대비 1.0% 증가했고, L(광의유동성, 말잔)은 전월말대비 0.8% 증가했다. 금융상품별로는 MMF 가 7.3 조원, 2 년미만 정기예적금이 7.1 조원 늘었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45.7 조원, 기타금융기관이 5.4 조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9.8 조원 줄었다. 발표문은 이 증감액에는 평잔·비교대상 표기를 붙이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은 같은 날 「2026 년 7 월 금융시장 동향」도 발표했다. 그 자료는 7 월 은행 수신이 30.0 조원 줄었고 자산운용사 수신이 42.8 조원 줄었다고 적었다. 다만 대상 월이 6 월이 아니라 7 월이고, 수신 통계와 통화 및 유동성 통계는 서로 다른 자료다. 두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없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통화량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정해 둔 금융상품의 잔액을 더한 값이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M1 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더한 것이다. M2 는 M1 에 2 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 설명이 2025 년 12 월 개편을 반영한 것인지는 그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이번 발표문이 M2의 금융상품별 증감으로 적은 항목도 MMF와 2년미만 정기예적금이다. 목록에 있는 상품의 잔액만 센다. 6월 M1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0.0%는 M2의 6.0%보다 4.0%p 높다.

그래서 어떤 거래는 M2를 바꾸고 어떤 거래는 바꾸지 않는다. 예금을 헐어 MMF에 넣으면 두 상품이 모두 목록에 있으므로 M2 총액은 그대로다. 예금으로 주식을 사면 그 예금은 주식을 판 사람의 예금으로 기록된다. 판 사람도 M2를 세는 부문 안에 있으면 총액은 줄지 않는다. 예금을 헐어 은행 대출을 갚으면 다르다. 대출은 목록에 없다. 갚은 만큼의 예금 잔액이 사라지고 M2는 그만큼 준다. 통화량이 늘었다는 문장은 이 목록의 잔액 합계가 늘었다는 뜻이다.

경제주체별 증감은 같은 M2를 누가 들고 있는지로 나눈 것이다. 6월에 비금융기업 보유액은 45.7조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은 5.4조원 늘었다. 가게 및 비영리단체는 19.8조원 줄었다. 보유 주체의 구성이 한 달 사이에 달라졌다는 뜻이다. 다만 가게에서 줄어든 19.8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 통계에 없다. 예금을 헐어 주식을 샀는지, 대출을 갚았는지, 소비에 썼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금융상품별 분류와 경제주체별 분류는 같은 M2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 것이다. 두 분류를 교차한 표는 이 발표문에 없다. 6월에 MMF는 7.3조원,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7.1조원 늘어 합계 14.4조원이다. 하나는 하루 단위로 넣고 뺄 수 있는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만기를 정해 두는 상품이다. 성격이 다른 두 상품이 같은 달에 함께 늘었다. 그러나 그 증가분을 어느 부문이 들고 있는지는 발표문에 나뉘어 있지 않다. 5월 발표문은 가게 및 비영리단체 보유 M2가 2년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줄었다고 적었다. 같은 상품이 6월에는 전체로 7.1조원 늘었다. 두 문장은 분류가 다른 문장이라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없다.

M1과 M2, Lf는 평잔으로, L은 말잔으로 적혀 있다. 평잔은 그 달의 평균 잔액이고 말잔은 월말 잔액이다. 전월대비 0.7%와 전년동월대비 6.0%도 서로 다른 비교다. 앞은 5월 평잔과 견준 값이고 뒤는 지난해 6월 평잔과 견준 값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30일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했다. M2의 통화성 상품을 다시 정하고,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바꾸면서 기타금융기관을 세분화했다. 2026년 1월 공표되는 2025년 11월분 통계부터 새 기준 M2만 공표할 예정이었다. 발표문은 이를 바꿔 새 기준과 옛 기준 M2 총액을 1년간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의 M2를 두 계열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 통계에서 줄어든 몫을 들고 있던 주체는 가게 및 비영리단체 부문이다. 은행 예금과 적금, 수시입출식 예금, MMF를 든 개인이 여기 들어간다. 6월 이 부문의 M2 보유액은 19.8조원 줄었고, 같은 달 비금융기업 보유액은 45.7조원 늘었다.

1,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예금을 헐어 은행 대출을 갚으면 그 1,000만원은 M2에서 빠진다. 같은 돈을 MMF에 넣으면 M2 총액은 그대로고 상품별 항목만 바뀐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무엇에 쓰였느냐에 따라 통계에 잡히는 결과가 달라진다. 가정에 따른 예시이고 발표문에 있는 수치가 아니다.

부문 합계는 개인의 잔액을 알려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예금은 늘고 다른 사람의 예금은 줄어도 공표되는 것은 더한 값 하나다. 본인 통장 잔액이 늘어난 달에도 부문 합계는 줄 수 있다. 통화량 6% 증가라는 문장이 본인의 금융자산이 6% 늘었다는 뜻이 아닌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 6.0%는 M2 평잔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가게 및 비영리단체 보유액이 19.8 조원 줄었다는 사실은 공표되지만, 그 감소가 어느 금융상품에서 났는지는 발표문에 나뉘어 있지 않다. 상품별 분류와 주체별 분류를 교차한 표가 없다.
- 가게와 비영리단체가 한 부문으로 묶여 있다. 개인의 예금과 단체의 예금은 성격이 다른데 합계 하나로만 공표된다.
- 한국은행은 2025 년 12 월 30 일 새 기준 M2 와 옛 기준 M2 총액을 1 년간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용된 숫자가 어느 계열인지 확인하려면 국민이 발표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
- 지표마다 기준이 다르다. M2 와 Lf 는 평잔, L 은 말잔으로 적혀 있고 전월대비와 전월말대비도 다른 비교다. 이 표기가 빠지면 어느 값과 견준 것인지 알 수 없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통화량을 다룬 글을 볼 때 세 가지를 문장에서 찾는다. M1 인지 M2 인지, 평잔인지 말잔인지, 전월대비인지 전년동월대비인지다.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숫자가 무엇과 견준 값인지 알 수 없다.
- 본인이 든 예금·적금·수시입출식 예금·MMF 의 잔액을 한 번에 더해 지난달 같은 날과 견줘 본다. 부문 합계와 본인의 잔액은 다른 값이다.

금융회사

- 통화지표의 증가율을 상품 판매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M2 증가율은 특정 상품의 수익과 연결된 값이 아니다.

당국

- 금융상품별 분류와 경제주체별 분류를 교차한 표를 함께 공표한다. 어느 부문이 어느 상품에서 늘고 줄었는지가 그 표에서 확인된다.
- 요약문에 적는 모든 증감률에 평잔·말잔 구분과 비교 대상을 함께 표기한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가게 및 비영리단체 보유 M2 의 감소가 이어지는지. 5 월 발표문은 이 부문 보유액이 2 년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줄었다고 적었고, 6 월 발표문은 19.8 조원 감소로 적었다.

A 로 가면 · 감소가 더 이어진다면 가게가 든 M2 항목의 잔액 합계가 계속 준다는 뜻이다. 그 까닭이 상환인지 다른 자산 매입인지 소비인지는 이 통계만으로 가릴 수 없다.

B 로 가면 · 감소가 멈추고 다시 늘어난다면 6 월의 19.8 조원 감소는 한두 달의 변화로 남는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매달 중순 공표되는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의 경제주체별 문장에서 가게 및 비영리단체 항목의 부호와 금액을 확인한다.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상품	MMF(머니마켓펀드) 정기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란	편
금융사건	1 조 5,587 억을 부풀리자 MMF 에서 17 조가 빠졌다 보름 만에 4 조원이 몰렸고 1 년 뒤 절반이 사라졌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1 국 금융통계팀이 2026 년 8 월 14 일(금) 「2026 년 6 월 통화 및 유동성」 을 발표	1 차	한국은행 경제통계 1 국 금융통계팀 발표 원문 전재. 본문 첫 문장 "한국은행은 '26.8.14. (금) 2026 년 6 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을 발표했다." KDI 등록일 표기는 2026.08.1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6
2026 년 6 월 M1(협의통화, 평잔)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1 차	원문 문장 "6 월 M1(협의통화, 평잔)은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함". 기준은 평잔이며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두 비교가 함께 적혀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6
2026 년 6 월 M2(광의통화, 평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1 차	원문 문장 "M2(광의통화, 평잔)은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함". 기준은 평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6
2026 년 6 월 M2 금융상품별 증감 — MMF +7.3 조원, 2 년미만 정기예적금 +7.1 조원	1 차	원문 문장 "금융상품별로 MMF(+7.3 조원) 및 2 년미만 정기예적금(+7.1 조원)이 증가하고". M2(평잔) 전월대비 증감을 서술한 문장에 이어진 항목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6
2026 년 6 월 M2 경제주체별 증감 — 비금융기업 +45.7 조원, 기타금융기관 +5.4 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19.8 조원	1 차	원문 문장 "경제주체별로 비금융기업(+45.7 조원)과 기타금융기관(+5.4 조원)이 증가하였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19.8 조원)는 감소함". M2(평잔) 전월대비 증감을 서술한 문장에 이어진 항목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6
2026 년 6 월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 전월대비 1.0% 증가, L(광의유동성, 말잔) 전월말대비 0.8% 증가	1 차	원문 문장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은 전월대비 1.0% 증가, L(광의유동성, 말잔)은 전월말대비 0.8% 증가함". Lf는 평잔·전월대비, L은 말잔·전월말대비로 기준이 서로 다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6
2026 년 5 월 발표문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M2 가 2 년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적었다(M2 평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1 차	한국은행 2026.7.15.(수) 발표 「2026 년 5 월 통화 및 유동성」 원문 전재. 원문 문장 "광의통화(M2, 평잔)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및 2 년미만 금전신탁이 증가하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M2 는 2 년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감소함". 5 월분에는 감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51
한국은행은 2025 년 12 월 30 일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해 M2 의 통화성 상품을 재정의하고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변경하며 기타금융기관을 세분화했고, 2026 년 1 월 공표되는 2025 년 11 월분 통계부터 신 M2 만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신 M2 통계와 구 M2 총액을 향후 1 년간 병행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차	한국은행 경제통계 1 국 금융통계팀 2025.12.30.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 원문 전재. 원문 문구 "[통화성 상품 재정의]광의통화(M2)의 구성항목인 통화성 상품을 국제기준(MFSM) 등을 참고하여 재정의하고", "[경제주체 부문 분류 변경 및 세분화] 국제기준(SNA, MFSM 등)에 맞추어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변경하고 기타금융기관을 세분화함", "2026 년 1 월 공표되는 「2025.11 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부터 신 기준의 M2 통계만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통화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1 년간 신 M2 통계와 구 M2 총액을 병행 공표할 예정임"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514
한국은행이 2026 년 8 월 14 일 발표한 「2026 년 7 월 금융시장 동향」 은 7 월 은행 수신 -30.0 조원, 자산운용사 수신 -42.8 조원으로 적었다	1 차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7 월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이 -30.0 조원으로 큰 폭 감소(수시입출식예금 감소), 자산운용사(-42.8 조원)도 주식형펀드 중심으로 감소세 확대를 기록함". 대상 월이 7 월로 「2026 년 6 월 통화 및 유동성」 과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다르다는 점을 본문에 적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2
M1은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더한 것이고, M2는 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더한 것이라는 설명	2차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개념 원문 문구 "M1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더한 것입니다", "M2는 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 M1보다 다소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비교적 손실 없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한국은행 발표문 전제본에는 정의 문장이 없어 이 설명을 인용했고, 본문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1878
MMF와 2년미만 정기예적금 증가액 합계 14.4조원	파생	7.3조원 + 7.1조원 = 14.4조원. 2026년 6월 M2(평잔) 전월대비 금융상품별 증감 가운데 발표문에 적힌 두 항목만 더한 값이며 M2 전체 증가액이 아니다
평잔은 그 달의 평균 잔액, 말잔은 월말 잔액이라는 표기 구분	파생	발표문이 평잔으로 적은 M1·M2·Lf에는 "전월대비"를, 말잔으로 적은 L에는 "전월말대비"를 붙인 표기에서 확인되는 구분이다. 발표문 본문에 용어 정의 문장은 없다
M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0.0%가 M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6.0%보다 4.0%p 높다	파생	$10.0\% - 6.0\% = 4.0\%p$. 2026년 6월 평잔 기준 두 지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차이이며 발표문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차 자료	추적 예정
2,645자	13건	9건 (69%)	6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의 경제주체별 문장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액이 계속 감소로 적히는가.
금융상품별 분류와 경제주체별 분류를 교차한 표가 공표에 추가됐는가. 신 M2와 구 M2 병행 공표가 끝난 뒤 어느 계열이 남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